

신안군 첫 산단 생긴다...압해도에 49만㎡ 규모

완제품 생산 김공장 등 유치
2022년 착공 2027년 완공
전남개발공사와 업무협약

신안 압해도에 지역 최초 산업단지 조성된다. 신안군은 압해도 북동부지역에 49만㎡(14만8225평) 규모의 산업(농공)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오는 2022년 착공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산단이 조성되면 1500여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군에서는 그동안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과 취약한 산업구조 등으로 개별 공장 수준에서 운영돼 왔다. 이번처럼 규모화되고 집적화된 산업단지 조성은 처음이다. 신안군은 조성된 산단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원료로 완제품을 생산하는 김공장 등을 유치하

고, 산재한 개별공장들의 이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산단이 조성되는 압해도는 목포시와는 압해대교, 무안군과는 김대중대교와 연결돼 접근성 등 입지여건이 양호하다. 사업 시행은 전남개발공사가 맡는다. 이를 위해 신안군과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12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산단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신안군은 각종 인허가 및 행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전남개발공사는 건설시공의 책임을 진다.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및 시행 방식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협력을 통해 별도의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경험과 자본을 두루 갖춘 전남개발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산단 조성에 속도를 내게 됐다"며 "산단 조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신안군과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12일 압해도 북동부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안군 제공>

진도개 혈통 보존·전염병 예방 진도군 심사·방역 활동 재개



진도군이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연기한 진도개 심사와 전염성 질환 방역사업을 12일부터 재개했다. <사진> 심사 대상은 부모견이 확인된 6개월 이상 성견 중 마등육견으로 심사위원 2명이 일정별로 마을을 방문해 심사한다. 진도개표준체형 심사표에 따라 60점 이상을 획득한 합격견은 전자번호를 부여받고 혈액을 채취해 등록하는 등 혈통관리를 한다. 진도개 심사와 연계해 마을 방문 시 주요 질병으로부터 진도개를 보호하기 위해 42일령 이상의 건강한 강아지를 대상으로 예방 접종 및 구충제 투여를 할 계획이다. 진도군은 날씨에 따뜻해지면 모기·진드기 등에 의한 전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소독 약품을 각 읍·면사무소에 제공하는 등 방역사업도 하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꼼꼼한 심사를 통한 진도개의 혈통보존 체계 구축과 전염병 예방을 통해 국경으로서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잘 자라거라...어족 보호·소득 증대 '일석이조'

신안 마을어장에 산란 앞둔 낙지 1만2000마리 방류

신안군은 남획과 해양환경 변화로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는 낙지자원을 회복하고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해 5~6월 중 알을 품은 어미낙지 1만2000마리를 갯벌 마을어장에 방류한다고 13일 밝혔다. 어미낙지 교접방류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3년째이며, 그동안 4만3000마리를 방류했다. 올 해는 지난해 대비 4배정도 많은 1만2000마리를 지도읍 등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해역과 습지보호구역 등 6개소 3200ha 해역에 방류할 예정이다. 어미낙지 교접은 낙지 생활습성에 맞게 어둡고 적정수온 유지가 가능한 신안수산연구소 낙지사랑방에서 이뤄지며, 교접된 어미낙지는 갯벌방류 약 2개월 후 산란을 하고 부화된 어미낙지는 어미낙지의 보호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게 된다. 성숙된 어미낙지는 마리당 약 100~200개의 알을 산란하게 되며, 1년 후 잘 자란 성숙 낙지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군은 갯벌에 방류된 어미낙지를 통해 어민낙지가 50만마리 이상 늘어



신안군은 올해 알을 밴 어미낙지 1만2000마리를 지도 갯벌 등 6개 해역에 방류한다. <신안군 제공>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안 갯벌낙지는 식감이 부드럽고 감칠 맛이 풍부해 보양식으로 남녀노소 즐겨먹는 대표 수산물이다. 신안에서 생산된 갯벌낙지(맨손어업)는 지난 2018년 11월 해양수산부로부터 국가중요어업유산 제6호로 지정될 정도로 그 역사와 상징성이 매우 큰 갯벌 어족자원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영광 칠산해역에 어린 대하 715만마리 방류

영광군이 지난 12일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칠산해역에 어린 대하 715만 마리를 방류했다. 방류한 어린 대하는 평균 1.2cm이상으로 올 가을에 어미 대하로 성장하면 조업 과정을 거쳐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르게 된다. 서해안에 주로 서식하는 대하는 단백질과 무기질, 키토산 등 영양이 풍부해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다이어트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건강식으로 인기가 높다. 방류 해역인 칠산바다는 국내 대표 어장으로 바닥이 모래질로 이뤄져 대하 서식의 최적지로 꼽힌다. 지역 어업인들은 "방류를 실시한 해와 실시하지 않은 해의 어황을 비교해 보면 어획량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며 고부가가치 품종인 대하의 지속적인 방류를 건의했다. 영광군은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오는 7~8월에는 염산 향화도해역에 어린 보리새우를 방류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품종을 선정해 방류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품종을 더욱 확대·육성해



영광지역 어업인들이 지난 12일 칠산바다에서 어린 대하 715만 마리를 방류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나갈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준영 기자 jylee@kwangju.co.kr

해남 관광지 입장료 50% 지역상품권으로 돌려준다

공룡화석지·땅끝전망대 등
해남군이 주요 관광지 입장료의 50%를 해남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준다. 해남군은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요

관광지의 입장료를 50% 환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총 결제금액이 2000원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대상 관광지는 공룡화석지(공룡박물관)와 땅끝전망대, 두륜미로파크, 우수영 등이다. 고산 운선

도 유적지는 조례 개정이 끝나는 대로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관광지 입장료 환급은 관람객 비용 부담을 줄이고 해남사랑상품권을 지역 내에서 사용하게 유도함으로써 관광객들이 해남에 머무르면서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시행한다"고 말했다. 해남군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방역으로 완화

됨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주요 관광지를 개방해 정상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1~2m 거리 유지가 가능한 범위에서 개인 관람만 허용한다. 입장 시 관람객 발열 검사는 필수다. 접촉이 불가피한 단체 관람과 체험 행사, 4D영상 관람 등은 추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재개할 방침이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한국전력 영광지사 전통시장에 마스크 전달



한국전력 영광지사는 최근 영광굴비골매일시장과 영광터미널시장 상인회에 마스크를 전달했다. <사진> 영광지사는 전 직원이 매일 급에서 십시일반 사회봉사단 기금을 모아 보호대상자·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윤병창 한전 영광지사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전 직원이 마음을 모았다"고 말했다. /영광=이준영 기자 jylee@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